

## 국보관

### 목조석가여래상의 머리 부분(목조불두)

#### 중요문화재

옷칠과 금박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 커다란 목제 머리 부분은 과거 서금당(西金堂)의 본존으로 모셔졌던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상의 일부입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 세기에 인도 북동부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기로 맹세한 역사상의 인물입니다. 이 상은 1181년 서금당의 화재로 소실된 8세기 불상을 대신해 새로 조성한 상으로, 유명한 불상제작자인 운케이(1150~1223년)가 1189년경에 만든 것입니다. 1717년에 서금당이 다시 화마에 휩싸였을 때 불상 전체를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머리 부분과 손(전시되지 않음), 그리고 광배에 달려 있던 부처와 2구의 비천을 분리하여 각각 따로 구해냈습니다.

이 석가상은 통통한 뺨과 입술을 가지고 있으며, 눈썹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머리는 '나발'이라 불리는 원추형의 머리카락으로 덮혀 있는데, 이는 삭발한 출가자가 머리를 깎은 후의 남은 부분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석가상의 이마에는 석가모니가 설교를 시작할 때 빛을 발했다고 하는 '백호'라는 이름의 굳게 말린 흰 털이 표현되는데, 이 상의 머리 부분에는 이마에 백호가 없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1181년에 소실된 불상을 조각한 8세기의 불상제작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백호에 수정을 박으려 하자, 갑자기 이마가 갈라지면서 상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에 경외심을 품은 불상제작자는 인공적인 백호를 넣는 것을 포기했고, 그 후 이 상을 만든 운케이도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